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동행

글 정재학 작가 / 사진 전호성



1975년부터 철거민 공동체운동을 벌여온 복음자리는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법인 건물 앞에 세워진 고 제정구 의원 추모비 옆에 신명자 이사장(두 번째줄 중앙)과 직원들이 모였다.

※ **복음자리**: 1975년 양평동 판자촌에 복음자리사랑방 개설. 1977년 경기도 시흥시 신천리에 복음자리마을 건설. 1979년 복음신용협동조합 설립, 한독마을 건설. 1980년 복음장학회 설립. 1985년 목화마을 건설, 작은자리회관 개관. 1986년 도시빈민연구소 설립. 1996년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설립.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9개 기관 운영.



정일우 신부(가운뎃줄 왼쪽 둘째)와 제정구 의원(가운뎃줄 중앙)이 주민들과 함께했다. 두 사람은 주민들에게 원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이웃이 되어 어울려 살았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복음자리 딸기잼. 딸기 함유량이 높고 맛도 좋아서 동종 제품에 비해 비싼 편이다. 중산층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

하지만 이 딸기잼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쫓겨난 철거민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들의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1970년대 초 청계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청계천 판자촌의 추억

대학생이 한 명 있었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니던 촉망받는 학생이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야학을 위해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온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청계천 판자촌의 현실은 참담했다. 판자촌에서 사는 도시 빈민들의 참혹한 삶 앞에서 민주주의나 정의를 외치는 것이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청계천을 떠날 수 없었다.

한 명의 신부가 있었다. 낯선 땅 미국에서 온 파란 눈의 신부. 서강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청계천에 온 후 인생이 바뀌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수직을 버리고 청계천에 들어와 주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청계천에서 만났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 평생의 동료가 됐다. 대학생은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불린 제정구(1944~1999년) 전 의원이고, 신부는

존 빈센트 데일리(John Vincent Daly)라는 이름의 미국인으로 훗날 우리나라에 귀화해 한국인이 된 정일우(1935~2014년) 신부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다. 숙명여대 국문과를 다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여성. 바로 신명자(64) 씨다. 그녀는 청년 제정구와 청계천에서 만나 결혼한 후 반려자이자 평생 동지로 살아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의 이사장을 맡아, 먼저 세상을 떠난 제정구와 정일우 두 사람의 몫까지 함께하고 있다.

세 사람은 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살기를 희망했지만 철거라는 현실 앞에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철거는 삶을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판자집이라도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세입자들은 보상금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렸다. 교회도 보상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마당에 대부분의 판자촌 주민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세 사람은 다른 지역을 찾았다. 그들이 옮겨온 곳은 안양천변의 양평동, 지금은 서부간선도로가 놓인 바로 그곳이다. 1960년대 말 잇단 가뭄으로 인한 흉년과 산업화로 인해 농민들은 서울로, 서울로 향했다.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은 주인 없는 땅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 안양천변도 그 중 한 곳이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주민들과 같이 살아보자는 것이었죠."

신명자 이사장의 증언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누가 누구를 돕거나 무엇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저 이웃이 되어 살면서 웃고 울고 함께 어울리고자 했다. 세 사람은 방 두 개짜리 집을 얻어서 하나는 정일우 신부, 다른 하나는 제정구, 신명자 부부가 살았다. 몸을 누이면 딱 맞는 크기였다.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도 하나 마련했다.

그나마 여자들은 공장에 취직해서 일자리가 있었지만, 남자들은 막노동을 하거나 일이 없으면 집에서 놀았다. 그 사람들과 사랑방에 모여서 동네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다. 취학하기 전에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놀던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신명자 이사장의 몫이었다. 그녀는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준비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세워진 제정구 의원의 흉상을 중심으로 복음자리의 기관장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권우희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 유혜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장, 신명자 복음자리 이사장,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강은이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장, 손현미 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선미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상임이사.

해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오해도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빨갱이”라고 속덕거리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도 철거된다는 소문이 들렸다. 2만 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매일 사랑방에 모이던 주민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조그만 집이라도 쫓겨 다니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들이었다.

정일우 신부가 나섰다. 친분이 있던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으로 독일 미제르울선교회에서 10만 달러를 지원 받아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기로 했다. 그 돈으로 가장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알아보다 고른 곳이 바로 경기도 시흥이었다. 주민들은 모두 함께 가길 희망했지만 갈 수 있는 세대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가족 숫자가 많은 집, 주민등록표 앞뒤로 몇 장씩 뽁뽁하게 주소가 적혀 있을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닌 집 등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세대들로 1백70세대를 선정해 함께 이주를 시도했다. 그 모습은 마치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했다.

이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시흥에도 착했지만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다. 주민들은 직접 땅을 파고 벽돌을 날라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을 지으면서 생긴 이견으로 밤이고 낮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제정구 의원이나 정일우 신부는 무엇을 하든 주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래야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일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그 덕분에 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고, 1977년 드디어 철거민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인 ‘복음자리’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확대

함께 모여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이 기승을 부렸다. 1만 원을 빌리

면 한 달에 1천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식이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백 원짜리 동전 하나씩 걸어서 만들었던 신용협동조합이 지금은 조합원 2만 명에 자산 1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의 모델이 됐다.

일하는 주민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탁아소와 공부방을 만들고, 돈을 모아 장학회를 만들어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공동체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도 시작했다. 포도밭을 매입해 포도를 재배하고 잼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이후 딸기잼과 유자차로 상품을 확대했다. 잼을 만들고 판매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판매 수익금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

마땅한 판로가 없었지만 정일우 신부가 전국의 성당을 직접 돌면서 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복음자리마을 공동체의 자활사업으로 시작한 복음자리 딸기잼은 이런 이유로 성당에서만 판매되다 보니 한때 수녀들이 만드는 잼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사업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법인에서는 성당 판매권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활사업 덕분에 주민들은 집을 지을 때 빌린 돈을 몇 년 만에 100% 갚을 수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서울에서는 철거가 계



재개발로 도시에서 내몰린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해 경기도 시흥에 세워진 집단 거주지 중에서 복음자리마을(1977년 조성, 왼쪽 사진)과 한독마을(1979년)은 재개발로 사라지고 이제 목화마을(1985년, 오른쪽 사진)만 남았다. 신명자 이사장이 목화마을의 장대영 자치회장(왼쪽), 이강래 노인회장과 함께했다.

속됐고, 집 잃은 철거민들이 계속 생겨났다.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는 복음자리 주민들이 갚은 돈으로 또 다른 철거민 공동체를 만들었다. 1979년 난곡에서 철거된 사람들이 중심이 된 한독주택을 만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갚은 돈을 가지고 1985년 목동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목화마을을 만들 수 있었다.

주민들의 연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작은자리회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교육, 여가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했다. 회관에는 신협, 장학회, 유아원, 도시빈민연구소 등이 들어섰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부방과 작은도서관, 토론장, 주민잔치 등의 공간으로 사용됐다.

목화마을 이후 네 번째 마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계동 철거 이후 철거민들의 상황은 변했다. 과거에는 세입자로서 철거 대상이라는 동질감을 가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재산권 개념이 대두되면서 보상금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도시 곳곳에서 진행된 철거민들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세입자들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토대가 됐고, 복음자리 공동체가 펼쳐온 다양한 자활 노력들은 복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됐다.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은 중단됐지만 복음자리 공동체가 꿈꾸던 이상과 정신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을 벗어나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구성에 큰 영감을 주었다.

“국제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가봤더니 대만의 한 교수가 우리

복음자리 공동체 모델을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더군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우리 사례로 강의도 한다고 해요.” 신명자 이사장의 말이다.

복음자리 공동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복음자리부터 목화마을에 이르는 주거 사업에서는 전 주민이 집을 지을 때 빌린 돈을 100% 상환했는데 이런 경우도 좀처럼 보기 드물다. 언제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도 복음자리 공동체만의 특징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는 1990년 막사이사 이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0년대는 1970~1980년대 같은 공동체운동 확산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내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음자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직영기관과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수탁 운영기관을 통해 가난한 주민,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노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우며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가 이루었던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비록 판잣집은 없어졌지만 가난과 빈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의 더 깊고 어두운 속살로 파고들어 더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힘든 시대를 지나왔지만 어쩌면 그때가 더 행복했노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복음자리 공동체의 정신이 오늘날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